Research Center

한투의 아침

■ **추천종목**

해외: 벤타스, 유니언퍼시픽, 비자, 미국 헬스케어, 나이키, 경제적 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 서모피셔사이언티픽, 미국채 7~10년물

중국: 중국평안보험, 중국중철, 중신증권, 이리실업, 삼마의류, 차이나타워, 안타스포츠

국내 대형주: 오리온, CJ대한통운, LG전자,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신세계

국내 중소형주: 인텔리안테크, 인선이엔티, 피앤이솔루션, 오이솔루션, 도이치모터스, 비아트론, 위지윅스튜디오

■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기업/산업**

화학: 선택과 집중

■ **경제/투자전략/글로벌**

경제 Weekly Preview: 글로벌 경기 저점 확인하기

이슈 Note: SI, 사활을 건 투자의 시작

Bond Portfolio Consulting: 국고채 50년과 10년 금리역전의 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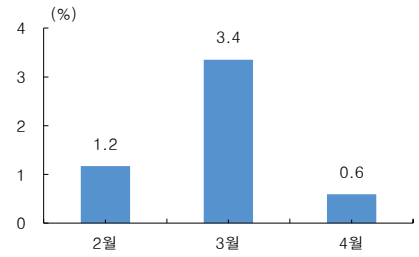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 자 전 략 | 박소연
해 외 주 식 | 백찬규
글로벌기업 | 권윤구
시 황 분 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중 국 기 업 | 이동연
계 량 분 석 | 안 혁
중 국 시 장 | 최설화
해 외 채 권 | 안재균
스몰캡전략 | 정훈석
베트남시장 | 이소연
경 제 분 석 | 박정우
유동성분석 | 송승연
글로벌 ETF | 배호진
채 권 분 석 | 오창섭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글로벌기업 | 정희석
크레딧분석 | 김기명

해외주식 추천종목

종목	투자포인트	추천일	수익률
벤타스 (VTR)	•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구조적인 성장세 •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이루어진 사업구성 및 배당 메리트 보유	4/1	-0.7%
유니언퍼시픽 (UNP)	• 북미 선로 42,118km를 보유한 미국 최고 철도 기업 • 견조한 실적 성장과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으로 기업가치 상향	4/1	-0.8%
비자 (V)	• 글로벌 결제 산업 내 51%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 • 복합 결제 기술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경쟁력 유지	4/1	0.8%
미국 헬스케어 (XLV): ETF	• 미국 헬스케어 업종 내 대표 기업들을 포함하는 ETF • 인구 고령화로 인한 관련 산업과 기업의 구조적 성장 기대	3/6	1.8%
나이키 (NKE)	• 글로벌 1위 스포츠 용품 제조기업으로 압도적 점유율 확보 • 아시아 시장 매출 증가 및 유통망 재정비로 마진 개선	2/12	-0.0%
경제적 해자 (MOAT): ETF	• 워런 버핏 투자철학인 경제적 해자 보유 기업에 투자하는 ETF • 무형의 가치를 지니며 장기 생존 가능한 기업 경쟁력에 주목	2/12	2.3%
마이크로소프트 (MSFT)	• 개인 컴퓨팅, 기업 생산성, 클라우드의 안정적인 사업 구조 • 구독 서비스 가입자 증가로 S/W, 클라우드 부분 수익성 향상	1/4	18.2%
아마존 (AMZN)	• 아마존 프라임 유료가입자 증가 등 온라인 쇼핑 장악력 확보 • 온라인 쇼핑 매출 증가에 클라우드 수익성까지 갖춘 양수겸장	1/4	15.6%
브로드컴 (AVGO)	• 통신 설비, 데이터 센터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반도체 생산 • 5G 네트워크 개화, 데이터 센터 수요 등 성장 모멘텀 확보	1/4	31.6%
서모피셔사이언티픽 (TMO)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장비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 •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중국 등 신흥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	1/4	24.9%
미국채 7~10년물 (IEF): ETF	• 미국의 7~10년물 국채 가격을 추종하는 ETF •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헤지 수단으로 활용	1/4	1.7%

해외주식 추천종목 월간 수익률



주: 전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 월간 단위 수익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포트폴리오 운용준칙

- S&P 500 시가총액 원화 15조원 이상 종목 중 우량 종목 선별
- 성장성(매출액, EPS, ROE 등), 안정성(현금흐름, 배당, 베타 등), 모멘텀(상대강도, 거래량, 52주 최저/최고가) 항목의 정량적 평가를 통해 종목 선정
- 글로벌 11개 업종별 시가총액 및 업종/산업 비중 등을 고려 최종 선정
- ETF는 당사 추천 포트폴리오 내 미국 상장 ETF 중 자산총액 1억달러, 3개월 평균 거래대금 100만달러 이상인 ETF로 선정
- 로스컷 기준은 -15% 또는 사업의 중대한 변경, 제도, 규칙, 세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편출입 결정
- 추천종목은 월간 단위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시행할 예정이며 로스컷 등은 주간 단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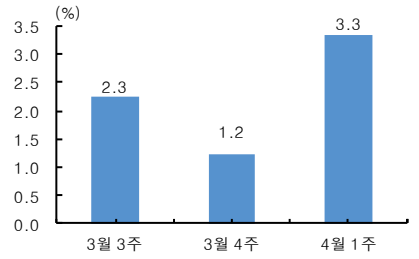
글로벌리서치부
A07250@truefriend.com

중국주식 추천종목

종목	투자포인트	추천일	수익률
중국평안보험 (601318 CH)/ (2318 HK)	• 보험/은행/투자 종합금융사, 보험시장 점유율 2위, 인지도 1위 • 올해 투자수익 개선, 보험사업은 안정적인 수익 유지 예상 • 최대 P2P 플랫폼(육금소) 거래규모 급증, 핀테크 기여도 상승	3/4	10.7%
중국중철 (601390 CH)/ (0390 HK)	• 중국 중앙정부 산하의 대형 인프라 건설기업 • 올해 철도건설 신규목표 6,800km, 작년목표보다 45% 증가 • 경기둔화 속에서 정부의 인프라투자 증가 수혜 기대	3/4	0.7%
중신증권 (600030 CH)/ (6030 HK)	• 중국 대형 증권사 중 하나, BK 27%, AM 17%, PI 25%, IB 8% •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 및 커촹반 출범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더불어 종합증권사의 선두지위 강화	4/2	2.9%
이리실업 (600887 CH)	• 유제품 1위, 상온/저온 우유 점유율 36.8%, 16.6%로 상승 • 작년 대대적인 마케팅에 따른 실적 부진은 올해 개선될 것 • 2019년 매출 및 순익 증가율 가이던스 각각 14%, 18% 제시	3/4	7.4%
삼마의류 (002563 CH)	• 중국 최대 아동복 상장사, 매출비중 아동복 53%, 일반 47% • 해외 유명 브랜드 인수 및 협력을 통해 아동복 점유율 확대 • 2019년 EPS 증가율 18%에 비해 PER 16배로 가격매력 부각	4/2	2.5%
차이나타워 (0788 HK)	• 중국 통신 3사가 주요고객인 통신탑 인프라 독점기업 • 중장기적으로 5G 네트워크 도입이 탑라인 증가 견인 • Tenancy ratio(사이트 당 임차비율) 상승으로 수익률 개선	3/4	1.5%
안타스포츠 (2020 HK)	• 다각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 보유로 다양한 소비층 수요 충족 • FILA 인지도 상승으로 2019년 매출액 호조세 지속 전망 • Anta 브랜드 10%대 중반 증가세, Descente 등 기타 브랜드의 수익성도 개선 예상	3/4	12.4%

주: 동시상장 종목일 경우 수익률은 본토 티커 기준

중국주식 추천종목 주간 수익률



주: 본토 티커, 전주 금요일 종가 기준 주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포트폴리오 운용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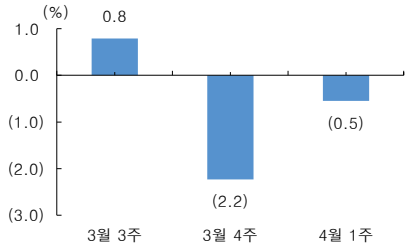
- CSI 300, 항셍, 홍콩H 및 미국상장 중국ADR에서 시가총액 원화 5조원 이상 종목 중 우량 종목 선별
- 성장성(매출액, EPS, ROE 등), 안정성(현금흐름, 배당, 베타 등), 모멘텀(상대강도, 거래량, 52주 최저/최고가) 항목의 정량적 평가를 통해 종목 선정
- 글로벌 11개 업종별 시가총액 및 업종/산업 비중 등을 고려 최종 선정
- 로스컷 기준은 -15% 또는 사업의 중대한 변경, 제도, 규칙, 세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편출입 결정
- 추천종목은 월간 단위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시행할 예정이며 로스컷 등은 주간 단위 관리

글로벌리서치부
A07250@truefriend.com

대형주 추천종목

종목	투자포인트	추천일	수익률
오리온 (271560)	• 중국 판매 신제품 판매 증가 및 기존 제품 회전율 개선으로 3월 이후 향상 전망 • 베트남의 춘절 프로모션 관련 비용 집행 안분으로 2분기 기저 효과 기대 • 중국 OPM 개선, 한국/러시아 실적 호조로 연결 영업이익 증가, 컨센서스 부합 예상	4/1	-0.1%
CJ대한통운 (000120)	• 3월부터 택배단가 인상 시작. 외형경쟁 완화로 운임상승 본격화될 전망 • 택배시장의 구조적 변화 주도하는 M/S 48%의 1위로서 프리미엄 회복할 것 • 현 부채비율 수준에서는 무리한 외형확대보다 수익성 제고에 힘쓸 방침	3/25	-3.2%
LG전자 (066570)	• 가전사업부 실적 개선세. 미세먼지 이슈로 환경관련 제품 판매 호황 • 상반기 실적 고비 후 하반기 OLED TV 출하량 늘어 이익 YoY 증가 • 최근 IT 업종 내 대형주 투자심리 부진으로 대안주로 떠오를 수 있음	3/11	2.6%
SK텔레콤 (017670)	• 3월 5G 출시로 5G 성장 모멘텀 부각 • 보안, 미디어, 커머스 등 비통신 사업으로 성장성 높일 것 • 올해부터 하이닉스 배당 연계한 배당 확대, 배당 메리트 증대	3/4	-5.8%
SK이노베이션 (096770)	• IMO의 규제로 인한 최대 수혜주, 국내 유일한 저유황유 생산정유사 • 배터리 부문이 2022년부터 본격화되며 14조가량 사업가치 증가 전망 • 주주환원정책 및 실적증가로 실질적 배당금 증가 및 자사주 매입예상	1/28	-1.1%
신세계 (004170)	• 소비양극화 수혜 산업인 백화점 중 대형 점포를 다수 보유해 견고한 실적 •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도 매출변동 적어 규제 시행의 영향은 크지 않음 • 단체관광객 재개시 명동 면세점의 지리적 이점이 다시 부각될 것	1/28	17.4%

대형주 추천종목 주간 수익률



주: 전주 금요일 종가 기준 주간 단위 수익률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종목선정기준

- 국내주식 중 전년말 기준 시가총액 2조원 이상 종목을 대형주로 분류, 그 중 우량 종목 선별
- 성장성(매출액, EPS, ROE 등), 안정성(현금흐름, 배당, 베타 등), 모멘텀(상대강도, 거래량, 52주 최저/최고가) 항목의 정량적 평가를 통해 종목 선정
- 목표수익도달 및 로스컷은 +15%/-15%를 원칙으로 하되 리스크 관리, 사업의 중대한 변경, 제도, 규칙, 세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
- 추천 기간은 1~2개월 원칙으로 하되 목표수익도달 및 로스컷 등 주간단위 관리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신세계,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LG전자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기업분석부
A01080@truefriend.com

중소형주 추천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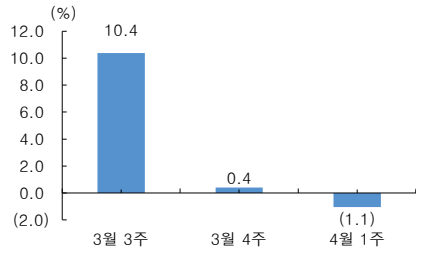
종목	투자포인트	추천일	수익률
인텔리안테크 (189300)	• 저궤도 위성통신 프로젝트의 선두주자 OneWeb 프로젝트가 첫 위성발사 성공 • OneWeb의 지상용 안테나 독점 공급자로 참여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해상용 안테나 수요 증가와 지상용 안테나 시장 진입으로 2019년 성장세 강화	4/1	-5.8%
인선이엔티 (060150)	• 건설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중간처리 사업의 성장 전망 • 상반기 사천 매립장의 신규 가동, 하반기 광양 매립장의 재개 예정 • 매립 사업은 동종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50%를 초과하는 고수익 사업	4/1	5.1%
피앤이솔루션 (131390)	• 2019년 고객사 증설과 해외 신규 수주로 외형 성장 전망 • 중국향 장비 납품 턴키 수주로 진행돼 매출 증가와 고객사 다변화 가능 • 수주잔고를 통해 중장기적 성장세 지속. 2차전지 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3/18	-3.4%
오이솔루션 (138080)	• 네트워크 필수장비인 광 트랜시버 전문 기업 • 국내 5G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광 트랜시버 매출 증가 • 삼성전자향 5G 이동통신 기지국용 광모듈 수주분 실적 반영 본격화	3/11	16.0%
도이치모터스 (067990)	• 지속적인 BMW 신차 출시 라인업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 A/S 센터 확충 및 factory 정비 추가로 규모 확대 및 이익 개선 전망 • 올해 도이치오토월드 공정률 90% 달성으로 대규모 이익 반영	3/4	11.8%
비아트론 (141000)	• 19년 중국 OLED 투자 재개, 플렉서블 OLED용 PIC장비 수주 재개 전망 • 중국 폴더블 스마트폰 발표, 패널업체 장기적 폴더블 OLED capa 필요성 증가 • 수주잔고 없어 단기 실적개선 어렵지만 수주 모멘텀에 따른 주가 상승 예상	2/18	4.2%
위지윅스튜디오 (299900)	• 할리우드의 스크린X 채택 본격화로 매출 증가 • 2019년 월트디즈니 15편의 라인업 스크린X버전 VFX 참여 • 뉴미디어 부문도 전시, 광고, 공연 등에서 VFX채용 확대로 성장세 지속	2/7	24.7%

.

종목선정기준

- 국내주식 중 전년말 기준 시가총액 2조원 미만 종목을 중소형주로 분류, 그 중 우량 종목 선별
- 성장성(매출액, EPS, ROE 등), 안정성(현금흐름, 배당, 베타 등), 모멘텀(상대강도, 거래량, 52주 최저/최고가) 항목의 정량적 평가를 통해 종목 선정
- 목표수익도달 및 로스컷은 +15%/-15%를 원칙으로 하되 리스크 관리, 사업의 중대한 변경, 제도, 규칙, 세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
- 추천 기간은 1~2개월 원칙으로 하되 목표수익도달 및 로스컷 등 주간단위 관리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

중소형주 추천종목 주간 수익률



주: 전주 금요일 종가 기준 주간 단위 수익률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기업분석부
A01080@truefriend.com

| 최우리 | woori_choi@truefriend.com |

시장 동향과 특징주

해외 증시 상승 속 외국인 및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코스닥 동반 상승

- 미국시장이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소폭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의 매도세에 장중 2,200P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외국인 및 금융투자 등 여타 기관 매수세로 재상승하여 2,200P선을 회복하며 마감. 상승세로 시작한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외국인 및 개인 매수세로 재상승하며 마감
- 상승 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비금속광물, 의약품, 전기가스 업종 등이 내림세를 보인 반면 기계, 섬유의복, 통신 업종은 오름세. 동원시스템즈, 이노션, 코스맥스 등이 약세를 보였으나 세아베스틸, 호텔신라, LF 등은 강세. LF는 지난 3년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으며 세아베스틸은 수출 물량 확보로 판매 단가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 반면 이노션은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약세를 보였으며 GKL은 경영위원회의 올해 경영실적 악화 전망에 약세

구분		주요 종목 및 내용
급등주	씨트리(047920)	세계 최초로 아픽사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원천기술 개발 소식에 상한가
	로보로보(215100)	SW 교육 의무화로 코딩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동시에 중국 공교육 시장 진출 기대감이 더해지며 급등세
52주 신고가	오션브릿지(241790)	진입장벽이 높은 반도체용 특수가스 시장 진입에 성공하며 올해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신고가
	동아화성(041930)	정부의 '수소 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발표 소식에 수혜주로 주목 받으며 신고가
	기아차(000270)	통상임금 충당금 환입과 함께 미국에서 텔루라이드의 높은 인기에 실적 증가 기대감이 반영되며 신고가
	세진중공업(075580)	사업다각화, 발주 물량 집중 등으로 올해부터 제2의 최대 성장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소식에 신고가
실적주	이녹스첨단소재(272290)	중소형 OLED향 제품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매출 증가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세
	와이솔(122990)	5G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SAW Filter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실적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며 강세
	나노엔텍(039860)	수출 확대와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한온시스템(018880)	하반기부터 친환경 차량 매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외형성장과 함께 실적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테마주

반도체 장비

- 주요 부품가격의 하락, 美 마이크론의 감산 등으로 반도체 수요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에 관련주 강세
- 이오테크닉스(039030), 유진테크(084370), 네패스(033640) 등

면세점

- 따이공의 대형화로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실적 상향 기대감이 반영되며 관련주 강세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27390), 글로벌텍스프리(204620), 호텔신라(008770) 등

화학

선택과 집중

2019년은 미국발 공급충격

에틸렌을 중심으로 한 NCC 설비의 실적부진은 2019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는 결국 미국의 중국향 석유화학제품 수출재개로 이어진다. 허리케인 하비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아시아 수급은 미국 증설충격에서 잠시 비켜서 있었다. 그러나 2019년 말이면 2017년부터 누적기준 10.7백만톤/년에 달하는 미국발 공급충격이 가시화된다. 특히 미국의 에틸렌 수출 터미널이 4분기 상업가동을 시작하면 하방압력은 가중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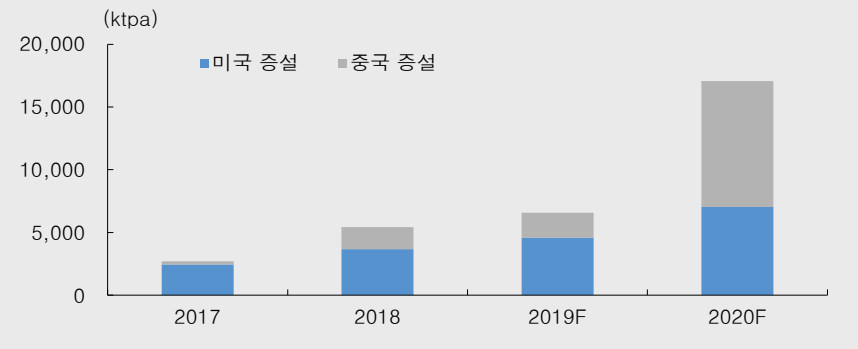
2019년 이후는 중국 및 정유사발 공급충격

중국의 에틸렌 자급률 확대 계획과 정유사의 에틸렌 설비투자의 물결은 2020년부터 2022년 또는 그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20년에 계획되어 있는 중국의 신증설 규모만 11.1백만톤/년으로 작년 세계 수요의 7%에 해당한다. 1백만톤/년 이상의 대규모 설비만 7개가 계획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가동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연을 감안해도 미국에 이어 중국발 공급충격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차별화 기업에 집중할 시기

NCC에 노출되어 있는 순수 석유화학 기업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바라볼 시기다. 그러나 LG화학의 경우 전기차용 배터리와 공급충격에서 자유로운 석유화학 제품군을 감안하면 주가도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시기다. 송원산업은 부진한 시황으로 목표주가를 15% 하향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년대비 25% 감소하고 석유화학 신증설이 모두 지연되지 않는 한, 폴리머안정제는 판래량 증가와 수급개선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극심한 매크로 악재가 없는 한, 저점 매수구간이다.

미국과 중국의 증설만 고려해도 에틸렌 시황은 구조적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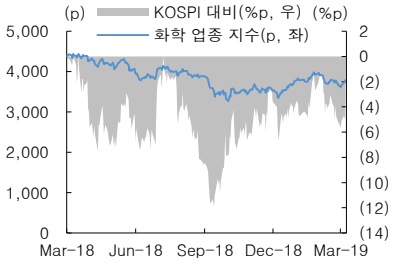


자료: 산업자료, 한국투자증권

중립(유지)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LG화학	매수	450,000원
롯데케미칼	중립	-
금호석유	중립	-
롯데정밀화학	매수	73,000원
송원산업	매수	28,000원(하향)
삼양패키징	매수	24,000원

12개월 업종 수익률



자료: FnGuide - WICS

이도연
daniel.dy.lee@truefriend.com

글로벌 경기 저점 확인하기

다음주(4/8~12) 중국 수출입과 사회융자총액에 주목
중국 사회융자총액은 전월비 크게 증가, 2분기 유동성 공급효과 기대
유동성확대는 신흥국 경기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경기 저점을 확인하는 단계

글로벌 경기 리스크 완화 국면, 경기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

이번주 매크로 환경은 주요 제조업 지표들이 선전하며 긍정적 흐름을 보여줬다. 다만 3월 ISM 제조업지수와 중국 제조업 PMI의 회복이 계절적 반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경기회복의 단초를 제공한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아직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주 발표되는 중국의 3월 사회융자총액과 수출입 지표의 방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ECB 통화정책 회의와 3월 FOMC 의사록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미 완화적 정책 스탠스가 기존 회의를 통해 확인된 만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먼저 3월 중국 수출입은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점차 해소되는 가운데 연휴 이후 재개된 기업활동으로 수출 증가율 반등이 예상된다. 다만 유로존 제조업 PMI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개선이 제한된 모습이다. 주요국 경기도 아직은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중국 제조업 PMI도 내수관련 지표 대비 대외교역 관련 지표는 아직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반등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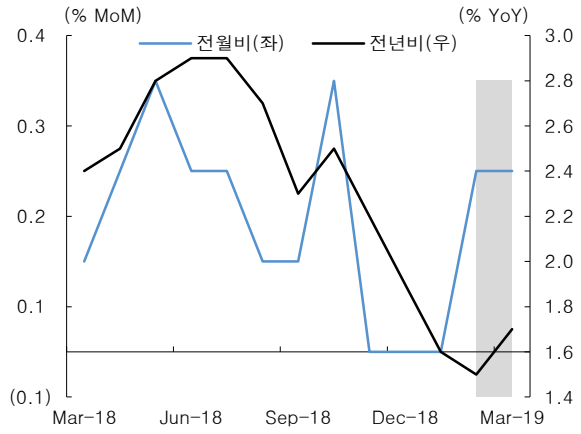
다음으로 중국의 사회융자총액의 경우 1.8조위안으로 전월대비 크게 증가했을 전망이다. 제조업 경기전망 상승과 인프라투자 기대감이 높아지며 기업의 중장기 대출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가속화 및 최근 낮아진 금리로 회사채 발행규모가 확대되며 전체 사회융자총액 증가를 지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분기 전체 사회융자총액은 7.2조위안 수준으로 전년비 21.9%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2분기 실물경기 연착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유동성 방향이 신흥국 경기 불확실성을 크게 좌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신흥국 리스크 지표인 EMBI+에 대한 중국 사회융자총액의 영향력은 2004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분기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중국의 유동성 환경을 고려하면 신흥국 경기는 점차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역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호전되면서 2분기에는 신규주문 증가가 예상되는 등 투자 사이클이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다. 글로벌 경기 대한 우려가 점차 해소되며 경기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진입을 예상한다.

정희성
hs.jeong@truefriend.com

김다경
dahkyung.kim@truefrien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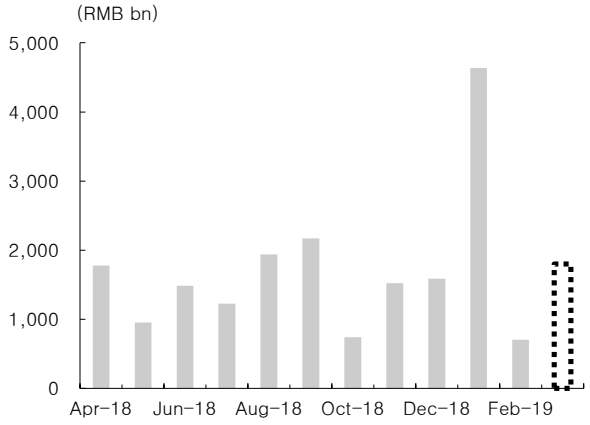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3월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은 여전히 낮음



▶ 미국 3월 소비자물가(4/10 발표, 예상치 0.2% MoM)

- 미국 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2%(이전치 0.2%), 전년비 1.7%(이전치 1.5%) 상승했을 전망. 시장 예상치인 전월비 0.3%/전년비 1.8%의 상승률을 하회하는 수준
- 3월 국제유가가 58달러 선까지 올랐고 아파트 렌트비도 상승률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
-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춤하고 중고차 가격과 의료서비스 부문의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할 전망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기업 서베이 지표의 세부 항목 중 가격지수들도 유의미한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어 당분간 물가 상승압력이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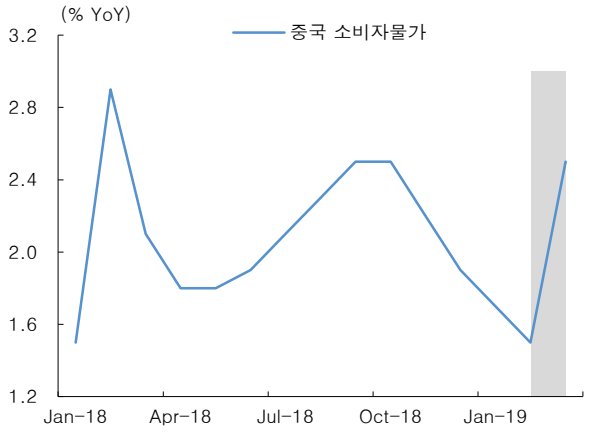
[그림 2] 중국 3월 사회융자총액 전월비 크게 증가



▶ 중국 3월 사회융자총액(4/10~15 발표, 예상치 1.8조위안)

- 중국 3월 사회융자총액은 1.8조위안(이전치 0.7조위안)을 기록할 것. 시장 예상치 1.75조위안을 상회하는 수준
- 제조업 경기전망 상승과 인프라투자 기대감이 높아지며 기업의 중장기 대출수요가 증가했을 것. 다만 부동산 경기의 하강 사이클을 고려하면 민간부분의 대출수요가 높지 않을 전망. 신규대출은 1.2조위안 수준 예상
- 한편 은행 부외거래 부분에서 그림자금융(위탁, 신탁, 인수어음) 부분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가속화 및 최근 낮아진 금리로 회사채 발행규모 확대되며 전체사회융자총액은 크게 증가했을 전망

[그림 3] 중국 3월 소비자물가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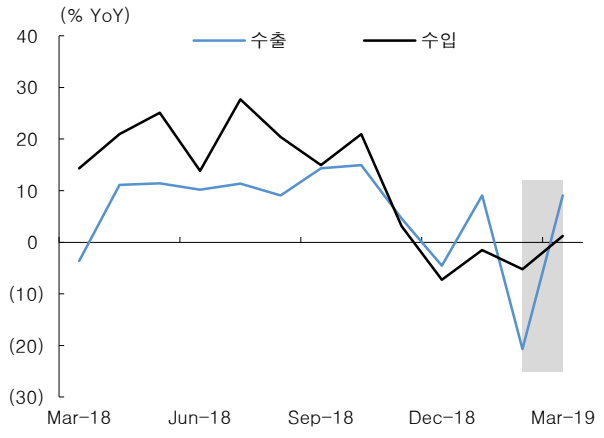


주: 음영부분 당사 전망치
자료: CEIC,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중국 3월 소비자물가(4/11 발표, 예상치 2.5% YoY)

- 중국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비 2.5%(이전치 1.5%)를 기록했을 전망. 시장 예상치 2.3%를 상회하는 수준
- 돼지열병 사태로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이 전월비 10% 이상 급등. 이에 따른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는 0.3~0.4%p 수준인 것으로 판단. 그 밖에 신선제품 가격도 3월들어 크게 상승하는 등 식품류의 물가 상승압력이 전체 소비자물가 급등을 이끌 것으로 판단
- 비식품류에서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3월에만 국내 정제유 가격을 두 차례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중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

[그림 4] 중국 3월 수출입 반등하겠으나, 반등폭 제한적



주: 음영부분 당사 전망치
자료: CEIC,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중국 3월 수출입(4/12 발표, 예상치 9.1%/1.2% YoY)

- 중국 3월 수출입은 각각 전년비 9.1%/1.2%(이전치 -20.7%/-5.2%)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인 12.0%/0.2%를 소폭 하회할 전망. 무역수지 흑자는 80억달러 전망
-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점차 해소되는 가운데 연휴 이후 재개된 기업활동으로 수출 증가율 반등 예상. 다만 유로존 제조업 PMI는 여전히 하락세 보이고 있어 경기 개선이 제한된 모습. 중국 제조업 PMI도 대외교역 관련 세부지표는 아직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반등폭이 제한적
- 한편 수입은 중국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와 연초대비 회복한 원자재 가격에 힘입어 반등했을 전망

<표 1> 주간 주요 경제지표

날짜	이벤트	당사 예상치	시장 예상치	이전치
4/8	미국 2월 내구재주문 확정치 (MoM)	n/a	n/a	(1.6%)
4/9	중 · EU 정상회담			
4/10	Fed Clarida 연설			
	한국 3월 실업률	n/a	n/a	3.7%
	일본 2월 핵심기계수주 (MoM)	n/a	2.5%	(5.4%)
	ECB 통화정책회의			
	미국 3월 소비자물가 (MoM)	0.2%	0.3%	0.2%
	EU 정상회담			
	3월 FOMC 의사록 공개			
4/10-15	중국 3월 사회융자총액 (CNY bn)	1,800.0	1,750.0	703.0
4/11	한 · 미 정상회담			
	인도 총선			
	중국 3월 소비자물가 (YoY)	2.5%	2.3%	1.5%
	Fed Clarida 연설			
4/12	유럽 2월 산업생산 (MoM)	n/a	n/a	1.4%
	미국 4월 미시간 소비자신뢰지수 (pt)	n/a	98.0	98.4
	중국 3월 수출입 (YoY)	9.1%/1.2%	12.0%/0.2%	(20.7%)/(5.2%)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SI, 사활을 건 투자의 시작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전통 제조 및 유통 기업들의 경쟁강도 강화
대기업 계열의 SI 기업은 그룹사 성장을 위한 핵심 축으로 부상
관련 기업(현대오토에버, 삼성에스디에스, 롯데정보통신 등) 재평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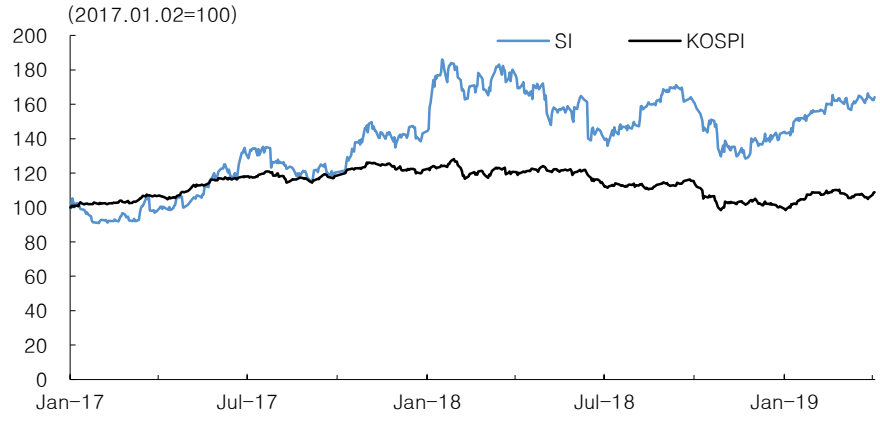
SI 기업,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

지난 3월 28일 현대기아차그룹의 SI(System Integration)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됐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대표기업 소속 SI 6개사(삼성에스디에스, 현대오토에버, 신세계 I&C, 롯데정보통신, 포스코ICT, 아시아나IDT)의 주식을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과거 SI 계열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내부 시스템 발주, 정보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부서의 성격이 강했던 데다 내부매출이 많다 보니 '불투명한 지배구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Amazon, Netflix, Google 등 ICT역량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의 등장으로 SI 계열사는 그룹의 핵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과 유통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인 만큼 기업들은 성장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그룹의 IT전문가인 SI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17년 이후 SI 기업과 KOSPI의 흐름



주: SI Index는 현대오토에버, 삼성에스디에스, 롯데정보통신, 신세계I&C, 포스코 ICT, 아시아나IDT로 구성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이나예
nylee@truefriend.com

국내 IT서비스 산업은 SI 기업이 주도

신기술 발전으로 SI 기업의 역할 확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SI 기업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SI 기업의 역할은 회사의 서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단순 IT업무의 수행이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거나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에 활용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SI 기업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IT서비스 산업은 대형 IT서비스 업체 즉, SI 기업의 유지보수 관련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하며 06년 이후 4%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엔 제조, 유통,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며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주요 대형 SI 기업은 관계사를 중심으로 하는 아웃소싱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특화솔루션, 스마트팩토리 등을 개발하고 있어 IT서비스 시장 확대의 수혜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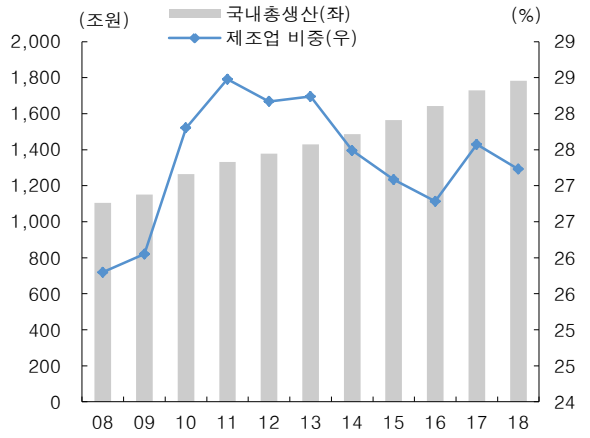
제조업의 스마트한 변신은 소프트웨어로부터

제조업 성장성 회복을 위한 스마트화 진행 중

우리나라 제조업은 산업 공동화가 진행되며 경제 성장 기여도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산업 공동화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이나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국내 기반이 없어질 뿐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고도화가 일어나지 않고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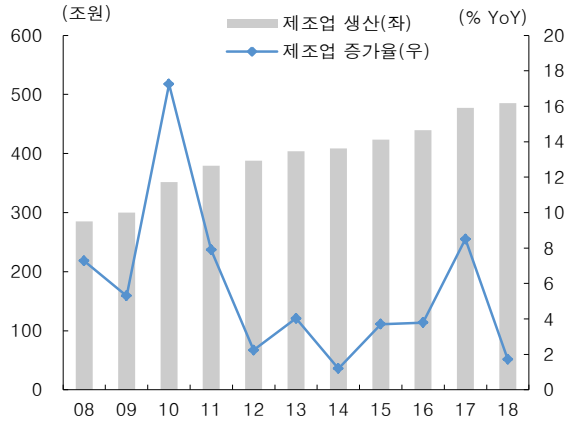
우리나라 GDP의 제조업 의존율은 18년 기준 27%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제조업의 성장률은 00년 13%를 기록한 이후 둔화되며 18년엔 1.7%를 기록했다. 제조업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그 핵심은 제조기술 그리고 기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있다.

[그림 2]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과 제조업 비중



자료: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규모 및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스마트팩토리에서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스마트팩토리'에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 스마트팩토리의 구축은 단순한 공장 자동화가 아니라 전 제조공정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조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능동적으로 지시하거나 수행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는 등 스마트화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팩토리 산업은 18~20년까지 연평균 11%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고도화된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이라 불리는 CPS(Cyber Physical System)는 연평균 30%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많은 1, 2차 벤더와 협력해야 하는 대기업은 SI 계열사를 중심으로 자체 플랫폼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내부 적용 이후엔 패키지화를 통한 외부 판매를 추진할 전망이다.

옴니채널을 추구하는 신유통

ICT기업의 유통산업 진출로 '옴니채널' 가속화

만들면 팔리던 제조업의 전성기가 끝나고 점포수가 힘이던 유통업의 시대도 저물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반 유통채널들과 유통산업으로 진입하는 ICT 기업이 유통기업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 이제 유통업체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찾아 적절한 시점에 소비자에게 제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신기술 투자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 확대'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최저가, 원스탑, 당일 배송 등을 둘러싼 유통업계의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리적 판매망이 필요 없는 온라인, 모바일 등의 채널이 생성되면서 중간 유통채널을 생략하는 '산지 직송, 생산자/제조사 직배송'이 확대되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옴니채널(Omnichannel)' 전략이 화두다. 옴니채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많은 채널들을 연결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고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근하든지 통합적이고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옴니채널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선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또는 신제품의 재고 관리 등과 온라인상에서의 판매, 물류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옴니채널이 구축되면 소비자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원하는 상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가장 합리적인 구매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표 1> 유통채널 전략의 진화

	싱글 채널	멀티·크로스 채널	옴니 채널
소비자와 채널의 관계			
소비 특성	단일 채널에서의 소비	온·오프라인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소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에서 소비.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동일시
채널 특성	오프라인 채널만 존재	채널간 상호 경쟁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

자료: 업계 자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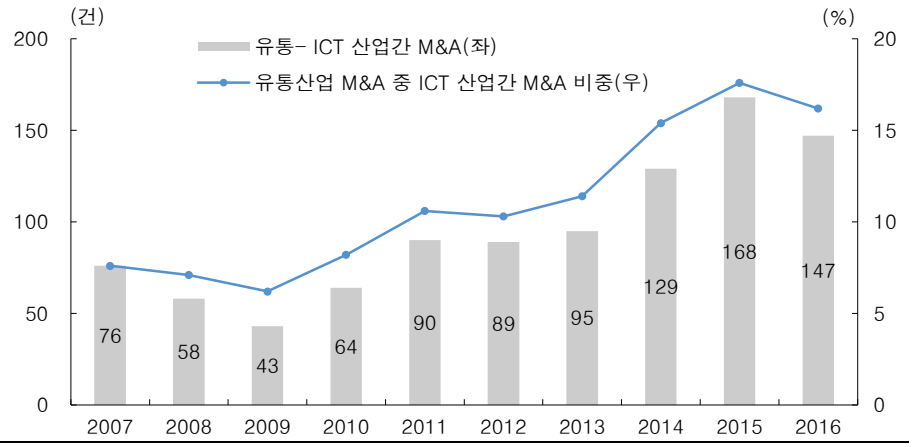
유통산업 성장성 회복의 핵심도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결국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역량은 유통산업의 성장성 회복에 필수적이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잠재 수요를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물류와 재고를 관리하며 신규 점포의 위치를 선정한다. 단순한 매장 관리(발주, 결제 등)와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 추천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담당한다. 글로벌 유통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전략들이다. 인공지능, 모바일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비즈니스에 보다 잘 접목시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ICT 부문의 핵심인 SI기업에 대한 관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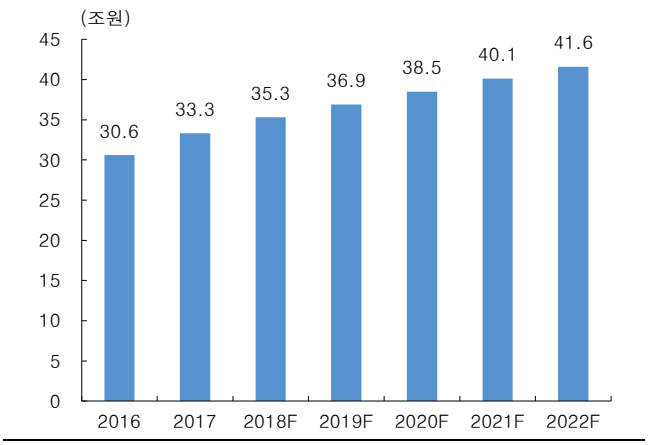
유통업체의 변화 노력은 M&A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글로벌 유통산업과 ICT산업 간 M&A 거래건수는 07년부터 16년까지 10년간 연평균 6.8% 증가했고 16년 글로벌 유통시장 내 전체 M&A 거래건수 중 유통기업이 ICT 부문 기업을 인수한 비중은 16.2%에 달했다. 유통기업이 본연의 비즈니스를 디지털화하고 성공적인 플랫폼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M&A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 글로벌 유통산업 M&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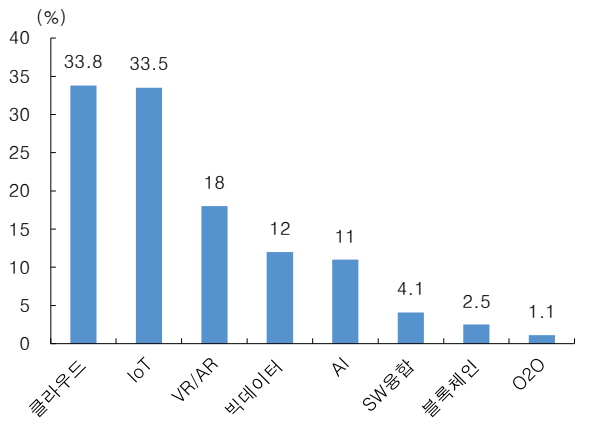
자료: 삼정KPMG, Bloomgerg

[그림 5] 국내 IT서비스 산업의 규모 및 전망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투자증권

[그림 6] 국내 기업의 SW 분야별 신사업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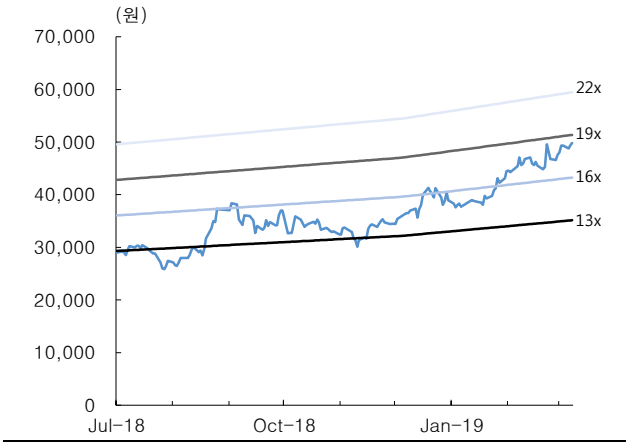
주: 2017년 기준, 복수응답 허용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투자증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개발은 결국 자본력과 계열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SI 계열사가 주도할 전망이다. 그룹사의 성장을 위해선 적극적인 R&D투자가 필수적이고 기존 비즈니스와 IT기술의 접목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의 기회는 SI 기업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림 7] 삼성에스디에스 12MF PER band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8] 롯데정보통신 12MF PER band



자료: Quantiwise , 한국투자증권

<표 2> SI 관련주

(단위: 배)

종목코드	종목명	12MF PER	비 고
A307950	현대오토에버	27.6	00년 설립된 현대차그룹의 IT시스템 설치 및 운영 기업으로 3월 28일에 신규 상장됨. 계열사 매출 비중 90%이상으로 부문별 매출 비중은 완성차 37%, 부품/철강 23%, 금융 16%, 건설 11% 등. 현대차그룹의 적극적인 ICT 투자 확대의 수혜 예상. 국내외 차량 제조라인 및 관계 철강사의 스마트팩토리 구현과 커넥티드 카 플랫폼 개발, 삼성동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스마트빌딩, 홈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진행 예상
A018260	삼성에스디에스	22.9	삼성그룹 계열사의 IT투자 확대로 IT서비스 부문 매출 증가 지속 예상. IT서비스 부문에서 4대 전략사업(인텔리전트팩토리, 클라우드, 애널리틱스, 솔루션)을 추진 중. 18년 기준 IT서비스부문과 물류 BPO부문의 매출비중은 각각 56.3%와 43.6%이며 이익 비중은 IT서비스부문이 97%로 압도적
A286940	롯데정보통신	18.4	18년 7월 상장된 롯데그룹 SI 전문 기업. 매출비중은 SI(System Integration) 77%, SM(System Management) 22%. 19년 롯데케미칼과 롯데칠성의 관제,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리테일 매장의 디지털 전환 등 향후 그룹사 IT 투자 확대 예상. 롯데그룹은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해 사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
A035510	신세계I&C	15.5	신세계그룹 계열의 SI 기업으로 계열사 매출비중은 약 75%. 신세계그룹 내 IT서비스와 IT유통, SSG페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문별 매출비중은 IT서비스 53%, IT유통 34%, 플랫폼 사업(SSG페이 포함) 13%. 신세계그룹은 향후 리테일 매장의 디지털 전환 및 SSG닷컴 투자 등 IT서비스 투자를 확대할 계획
A022100	포스코 ICT	14.2	포스코 그룹의 IT서비스 담당 기업으로 계열사 매출비중 75%. 포스코는 21년까지 전 공정에 스마트팩토리 적용 예정. 향후 포스코켐텍, 포스코에너지 등의 계열사로 관련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영역 확대 계획
A267850	아시아나IDT	8.2*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SI 기업으로 18년 11월에 신규 상장됨. 계열사 매출비중 약 62%. 그룹 정보화 전략 추진으로 AI, IoT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되며 관련 매출 증가 양상. LCC 시스템 구축, 공항 서비스 부문 등으로 사업 다각화 추진 중

주: 1. 4월 3일 종가 기준
2. *은 18년 실적을 반영한 TTM(Trailing Twelve Months)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Bond Portfolio Consulting

국고채 50년과 10년 금리역전의 힌트

국내외 채권시장 금리반등 진행

국내외 채권금리는 하락추세의 과열국면에서 반등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1.60%대에 진입하며 과열국면 신호가 나타났으며, 이후 가격부담에 따른 조정압력으로 채권금리가 상승 반전했다. 미국 채권시장도 국채 10년 금리의 2.50%대 진입과 함께 과열 신호가 발생하며 채권금리의 반등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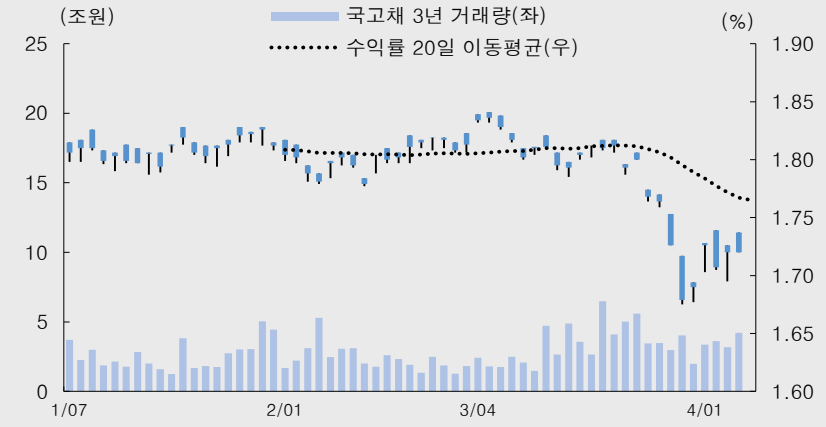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나타난 기준금리와 채권금리 역전(-)은 과도했다. 일반적으로 채권금리와 기준금리 역전은 금리인하 국면에서 발생하나, 아직까지 미국과 한국 통화정책에서 금리인하가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기업실적 발표 등 주목할 일정

다음주에는 1분기 국내외 기업실적 발표와 함께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등 주요일정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 1분기 국내외 주요기업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ECB(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금융완화 기조가 주목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5년 및 50년 입찰결과가 주목되며, 국채입찰에서의 투자심리가 향후 채권금리 반등 여부를 결정할 열쇠로 판단한다. 최근 국고채 50년 금리가 다시 국고채 10년 금리를 하회한 부분이 주목된다.

국고채 3년 수익률 vs. 거래량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목차

I. 채권금리 동향 2
II. 채권시장 요인분석 4
III. 채권투자 전략지표 점검 6
Appendix 투자분석 기초자료 9
1. 자산가격 추세판단 지표
2. 자산가격 추세힘 지표
3. 자산가격 변동성
4. 자산가격 변수간 상관관계
5. 한국-미국 채권금리 상관관계
6. 장단기 금리차 전략지표
7. 신용금리차 전략지표
8. 자산가격 시차상관 scenario
주간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18
발간자료 목록 19

오창섭
changsob@truefriend.com
여현태
hyuntai.yeo@truefriend.com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한국시장 주요 지표

한국 주요지수	4/4(목) 종가	등락률(%) 1D	1W	1M	YTD
KOSPI	2,206.53	0.15	3.69	0.72	8.11
KOSPI200	286.15	0.18	4.02	1.29	9.23
대형주	2,128.26	0.14	3.89	1.04	8.66
중형주	2,546.62	0.10	2.66	(1.03)	5.07
소형주	2,013.03	0.45	3.44	0.03	7.75
KOSDAQ	751.58	0.30	4.43	0.47	11.24
KOSDAQ150	1,221.41	(0.18)	4.37	(3.69)	4.73

수급	4/4(목)	1D	1W	1M	YTD
거래량 (백만 주, 기간 평균)	KOSPI	424	332	320	384
	KOSDAQ	872	824	785	753
거래대금 (십억 원, 기간 평균)	KOSPI	4,687	4,742	4,728	5,327
	KOSDAQ	4,326	4,065	4,409	4,055

(단위: %, bp)

금리	4/4(목)	1D	1W	1M	YTD
국고채 3년물	1.72	1.70	0.30	(9.50)	(10.60)
국고채 5년물	1.75	2.50	1.30	(13.00)	(14.20)
국고채 10년물	1.89	3.70	4.70	(9.80)	(6.90)
회사채 3년(AAA-)	2.06	1.50	0.30	(12.00)	(21.80)
회사채 3년(BBB-)	8.04	1.70	0.50	(12.10)	(21.00)

(단위: 원, %)

외환	4/4(목)	1D	1W	1M	YTD
원/달러	1136.4	(0.16)	0.04	(0.99)	(2.24)
원/100엔	1020.9	(0.30)	0.65	(1.29)	(0.41)
원/유로	1278.0	(0.30)	0.20	0.02	(0.62)
원/위안	169.2	(0.11)	(0.26)	(0.78)	(4.55)

업종 지수	4/4(목)	등락률(%) 1D	1W	1M	YTD
KRX 업종 지수					
자동차	1,467.93	1.38	5.44	0.89	8.67
반도체	2,287.87	0.77	7.69	7.66	30.81
헬스케어	3,491.26	(0.61)	3.61	(7.11)	(2.25)
은행	779.86	0.34	8.14	3.69	2.92
에너지화학	2,358.31	0.08	3.75	(2.22)	6.01
철강	1,636.61	0.42	6.15	0.93	10.42
방송통신	943.51	0.70	(1.68)	(4.53)	(5.87)
건설	639.64	(0.23)	4.15	0.24	(0.46)
증권	682.84	(0.09)	10.20	5.10	14.02
기계장비	526.91	(0.08)	5.58	(4.89)	(1.59)
보험	1,615.90	0.03	(0.85)	(1.33)	3.44
운송	571.06	(0.40)	4.26	(7.21)	(2.66)
유틸리티	1,134.91	(0.78)	(1.00)	(5.49)	(0.92)

업종 지수	4/4(목)	1D	1W	1M	YTD
KOSDAQ150					
기술주	1,444.30	(0.22)	3.80	(4.07)	3.63
소재	1,309.62	0.71	6.07	(3.05)	6.30
산업재	232.51	(0.31)	5.27	2.66	9.15
필수소비재	761.98	(0.68)	0.95	(2.31)	11.04
자유소비재	1,347.71	(0.31)	6.61	(4.21)	5.66
정보기술	577.06	0.19	5.23	1.39	16.19
생명기술	4,035.03	(0.57)	2.99	(6.92)	0.54
문화기술	2,352.99	0.54	4.67	(0.83)	(3.68)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61	1,472	1,290	508	52	113	108	8	501	19
	매도	2,341	1,232	1,147	286	67	139	102	5	548	22
	순매수	(380)	240	143	221	(15)	(26)	6	3	(47)	(3)
	2019년 4월 누계	(1,386)	906	378	76	25	77	46	8	145	103
	2019년 누계	(4,852)	5,374	(919)	880	(600)	(994)	(473)	(261)	530	396
코스닥	매수	3,747	367	201	60	16	50	33	1	40	27
	매도	3,743	346	224	74	16	44	53	1	35	28
	순매수	4	20	(23)	(14)	(0)	6	(20)	0	5	(1)
	2019년 4월 누계	(109)	48	73	67	4	13	(29)	2	15	(12)
	2019년 누계	1,415	667	(1,252)	(508)	104	(176)	(736)	(14)	78	(830)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자동차	575	IT가전	(126)	반도체	1,443	유틸리티	(204)
	반도체	562	화장품,의류,완구	(120)	IT하드웨어	640	소매(유통)	(177)
	은행	252	필수소비재	(101)	호텔,레저서비스	234	건강관리	(144)
	화학	213	통신서비스	(95)	증권	138	소프트웨어	(75)
	IT하드웨어	188	운송	(54)	은행	104	보험	(43)
종목	삼성전자	578	LG전자	(250)	삼성전자	1,053	현대차	(159)
	현대차	220	KODEX 200선물인버스2X	(210)	삼성전기	703	NAVER	(121)
	KODEX 레버리지	217	코스맥스	(105)	SK하이닉스	333	한국전력	(116)
	기아차	197	KODEX 인버스	(79)	호텔신라	275	롯데쇼핑	(105)
	삼성전기	154	SK이노베이션	(76)	KB금융	117	한국가스공사	(82)
	LG화학	132	SK하이닉스	(59)	기아차	88	LG이노텍	(74)
	삼성SDI	113	LG유플러스	(59)	고려아연	83	KODEX 200	(61)
	POSCO	89	신세계인터내셔날	(54)	LG전자	67	삼성화재	(50)
	신한지주	89	CJ대한통운	(53)	SK이노베이션	64	이마트	(46)
	KODEX 200	81	메리츠종금증권	(50)	SK텔레콤	58	S-Oil	(45)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IT하드웨어	140	건강관리	(260)	반도체	223	건강관리	(134)
	반도체	127	기계	(43)	소프트웨어	94	화학	(26)
	미디어,교육	29	화장품,의류,완구	(34)	IT하드웨어	68	미디어,교육	(20)
	자동차	9	호텔,레저서비스	(32)	디스플레이	33	기계	(18)
	소프트웨어	6	IT가전	(30)	IT가전	27	호텔,레저서비스	(17)
종목	이녹스첨단소재	62	바이로메드	(48)	네패스	68	오이솔루션	(46)
	스튜디오드래곤	48	컴투스	(36)	위메이드	67	포스코케미칼	(38)
	유진테크	35	에스에프에이	(33)	메디톡스	59	위닉스	(27)
	와이솔	27	에이치엘비생명과학	(29)	원익IPS	51	에스엠	(26)
	위메이드	26	파라다이스	(23)	동진쎄미켐	48	CMG제약	(25)
	네패스	25	메디톡스	(21)	주성엔지니어링	40	테스	(23)
	펄어비스	23	파멥신	(20)	엘비세미콘	34	파라다이스	(19)
	이오테크닉스	22	차바이오텍	(20)	현대바이오	33	코오롱생명과학	(17)
	테스	21	신라젠	(19)	와이솔	32	안트로젠	(16)
	에스모	18	셀트리온헬스케어	(19)	컴투스	31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6)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종가	1D	YTD
삼성전자	280,281	46,950	0.75	21.32
SK하이닉스	57,075	78,400	(1.88)	29.59
LG화학	26,578	376,500	0.00	8.50
현대차	26,388	123,500	(0.40)	4.22
셀트리온	24,151	192,500	(0.52)	(13.48)
POSCO	23,671	271,500	(0.55)	11.73
삼성바이오로직스	22,860	345,500	(1.57)	(10.61)
LG생활건강	21,803	1,396,000	0.43	26.79
신한지주	21,552	45,450	0.33	14.77
현대모비스	21,270	218,500	1.39	15.00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종가	1D	YTD
셀트리온헬스케어	9,612	68,400	(0.44)	(9.16)
CJ ENM	5,172	235,900	(0.25)	16.84
신라젠	4,630	65,800	(0.15)	(10.48)
바이로메드	4,354	272,900	(2.36)	7.44
포스코케미칼	3,550	60,100	(0.50)	(5.65)
메디톡스	3,534	624,800	1.59	8.13
에이치엘비	3,457	88,100	0.23	10.26
스튜디오드래곤	2,606	92,900	0.22	0.54
펄어비스	2,358	181,200	1.00	(12.84)
셀트리온제약	1,959	57,500	(0.52)	(9.45)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종가	1D	1W	1M	YTD
지역	MSCI 세계	517.28	0.56	2.40	2.51	13.52
	MSCI 선진국	2,143.02	0.53	2.28	2.52	13.75
	MSCI 신흥국	1,079.80	0.81	3.31	2.48	11.81
DM	S&P500	2,873.40	0.21	2.42	2.89	14.62
	Dow Jones	26,218.13	0.15	2.31	1.54	12.39
	Nasdaq	7,895.55	0.60	3.30	4.20	18.99
	Russell 2000	1,560.91	0.49	2.54	(0.92)	15.75
	영국 FTSE 100	7,373.64	(0.60)	1.93	3.35	9.59
	프랑스 CAC	5,451.69	(0.31)	2.93	3.12	15.24
	독일 DAX 30	11,921.03	(0.28)	4.31	2.83	12.90
	스페인 IBEX	9,480.90	(0.07)	3.34	2.39	11.02
	일본 니케이	21,724.95	0.05	3.29	(0.44)	8.54
	홍콩 항셍	29,936.32	(0.17)	4.04	3.37	15.83
EM	코스피	2,206.53	0.15	3.69	0.72	8.11
	코스닥	751.58	0.30	4.43	0.47	11.24
	중국 상해종합	3,246.57	0.94	8.40	7.23	30.18
	홍콩 H지수	11,692.37	(0.11)	3.52	1.01	15.48
	인도 Sensex	38,889.08	0.03	0.89	7.83	7.82
	베트남 VN	986.91	0.25	0.40	(0.71)	10.57
	인도네시아 JCI	6,487.56	0.18	0.66	(0.19)	4.73
	러시아 RTS	1,217.20	(0.58)	0.82	2.65	13.89
	브라질 Bovespa	94,491.48	(0.94)	2.82	(0.12)	7.51
	멕시코 Mexbol	43,339.75	0.03	0.91	2.17	4.08
글로벌 업종	에너지	167.82	(0.39)	1.16	1.03	14.11
	소재	193.82	(0.18)	3.28	2.06	13.06
	산업재	274.07	(0.11)	3.90	2.50	18.30
	경기소비재	248.91	0.14	3.57	2.13	12.41
	필수소비재	309.90	0.01	1.22	2.16	11.61
	헬스케어	561.26	(0.12)	2.25	1.41	6.82
	금융	174.75	(0.14)	3.36	1.79	14.25
	IT	420.16	(0.10)	3.76	6.33	21.25
	통신서비스	172.18	(0.10)	1.47	2.29	8.62
	유틸리티	177.91	(0.19)	0.38	1.51	7.88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종가	1D	1W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97.08	(0.01)	(0.12)	0.41	0.94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27.56	(0.14)	0.35	0.78	(0.30)
미주	브라질	3.87	(0.41)	3.20	(2.42)	0.25
	멕시코	19.26	(0.21)	0.41	0.19	2.03
아시아	한국	1,136.35	(0.16)	0.04	(0.99)	(2.24)
	일본	111.40	0.08	(0.69)	0.31	(1.54)
	중국	6.72	(0.11)	0.31	(0.17)	2.38
	대만	1.41	0.01	(0.50)	(0.27)	(0.89)
	인도	69.08	(0.95)	0.37	2.65	1.00
유럽	유로존	1.12	0.04	0.14	(0.91)	(2.01)
	영국	1.32	0.12	1.00	(0.05)	3.29
	러시아	65.39	(0.22)	(0.61)	0.53	6.06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

(단위: bp)

지역	국가	종가	1D	1W	1M	YTD
미주	미국	2.50	(2.33)	10.62	(22.15)	(18.34)
	캐나다	1.71	4.60	17.60	(22.80)	(25.70)
	브라질(USD)	8.99	10.40	(35.30)	(5.60)	(24.60)
	멕시코	8.04	0.40	4.70	(15.20)	(61.50)
유럽	독일	(0.00)	(1.00)	6.70	(16.00)	(24.40)
	영국	1.08	(1.60)	8.20	(19.10)	(19.50)
	프랑스	0.39	(0.90)	7.70	(17.00)	(32.10)
	이탈리아	2.56	1.70	7.30	(18.00)	(18.40)
	러시아	4.52	(0.30)	2.60	(18.60)	(53.20)
아시아	한국	1.89	3.70	4.70	(9.80)	(6.90)
	일본	(0.04)	0.10	4.60	(4.80)	(4.70)
	중국	3.26	1.10	17.90	5.70	(4.80)
	호주	1.89	5.40	16.80	(29.80)	(42.50)
	인도	7.34	6.40	(1.60)	(4.20)	(3.4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종가	1D	1W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443.51	0.18	2.47	4.84	18.48
	LMEX 지수	3,055.00	1.05	1.31	1.32	9.06
	CRB 지수	426.90	0.12	0.14	3.18	4.33
에너지	원유(WTI)	62.28	(0.29)	5.03	10.05	37.15
	원유(Brent)	69.07	(0.35)	1.84	5.18	28.38
	천연가스	2.68	0.19	(1.11)	(6.13)	(8.78)
금속	금	1,291.20	0.10	0.11	0.29	0.77
	은	15.08	(0.15)	0.71	0.42	(2.96)
	구리	6,492.00	1.02	2.48	0.22	8.83
	아연	2,930.00	2.59	1.49	5.21	18.77
	알루미늄	1,896.00	0.37	(0.78)	(1.15)	2.71
농산물	S&P 농산물 지수	277.14	0.36	(0.26)	(0.19)	(2.37)
	옥수수	363.75	0.28	(2.74)	(2.94)	(5.03)
	밀	472.25	0.27	1.67	3.68	(7.49)
	대두	901.25	0.28	1.32	(1.61)	(0.72)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종가	1D	1W	1M	YTD
미국	VIX	13.86	0.87	(3.95)	(5.26)	(45.48)
유럽	VSTOXX	14.38	1.30	(13.77)	5.32	(39.76)
한국	VKOSPI	13.60	2.33	(8.85)	(9.39)	(28.38)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5	26	27	28	29
日>
1월 산업 활동지수 MoM
(-0.2%, -0.4%, -0.4%)	美>
2월 주택착공건수(천건)
(1162, 1210, 1230)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
(124.1, 132.5, 131.4)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8.9%, n/a, 1.6%)
1월 무역수지(십억달러)
(-51.1, -57.0, -59.8)
유럽>
영국하원 대체 브렉시트안 투표
ECB 드라기 총재 연설	美>
클라리다 부의장 발언
4Q GDP 연간화 QoQ
(2.2%, 2.3%, 2.6%)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11, 220, 221)
유럽>
2월 M3 통화공급 전년비
(4.3%, 3.9%, 3.8%)	美>
퀄스 부의장 발언
2월 개인소득
(0.2%, 0.3%, -0.1%)
3월 시카고 구매자협회 PMI
(58.7, 61.0, 64.7)
2월 신규주택매매(천건)
(667, 620, 607)
3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98.4, 97.8, 97.8)
日>
2월 유효구인배율
(1.63, 1.63, 1.63)
2월 실업률
(2.3%, 2.5%, 2.5%)
2월 광공업생산 MoM
(1.4%, 1.4%, -3.4%)
1	2	3	4	5
韓>
3월 수출 YoY
(-8.2%, -6.5%, -11.1%)
3월 닛케이 PMI 제조업
(48.8, n/a, 47.2)
美>
2월 소매판매 추정 MoM
(-0.2%, 0.3%, 0.2%)
3월 마킷 제조업 PMI
(52.4, 52.5, 52.5)
2월 건설지출 MoM
(1.0%, -0.2%, 1.3%)
유럽>
3월 마킷 제조업 PMI
(47.5, 47.6, 47.6)
中>
3월 제조업 PMI(31일)
(50.5, 49.6,49.2)
3월 차이신 PMI 제조업
(50.8, 50.0, 49.9)	韓>
3월 CPI YoY
(0.4%, 0.7%, 0.5%)
美>
2월 내구재 주문
(-1.6%, -1.8%, 0.3%)
日>
1Q 단칸 대형 제조업지수(1일)
(12, 13, 19)
3월 닛케이 PMI 제조업(1일)
(49.2, n/a, 48.9)	韓>
재보궐선거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8.6%, n/a, 8.9%)
ADP취업자 변동(천명)
(129, 175, 183)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15, 211)	美>
3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
(n/a, 180, 20)
3월 실업률
(n/a, 3.8%, 3.8%)
中>
휴장(청명절)
8	9	10	11	12
美>
2월 제조업수주
(n/a, -0.4%, 0.1%)
2월 내구재 주문
(n/a, n/a, -1.6%)
日>
2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n/a, 600.4)	美>
클라리다 부의장 연설	韓>
3월 실업률 SA
(n/a, n/a, 3.7%)
美>
FOMC 의사록 공개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18.6%)
3월 CPI MoM
(n/a, 0.3%, 0.2%)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EU 긴급 정상회담
日>
3월 PPI YoY
(n/a, n/a, 0.8%)
2월 핵심기계수주 MoM
(n/a, n/a, -5.4%)	韓>
한미 정상회담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3월 PPI 최종수요 MoM
(n/a, 0.3%, 0.1%)
中>
3월 CPI YoY
(n/a, n/a, 1.5%)
3월 PPI YoY
(n/a, n/a, 0.1%)	美>
4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n/a, n/a)
유럽>
브렉시트 예정일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